



Original Article

Childhood Experiences, Paternal Attachment and Paternal Role of Primiparous Spouses

Joo, Kyung Sook¹ · Sung, Mi-Hae²

¹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Munkyoung College,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초산모 배우자의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부성역할에 관한 연구

주경숙¹ · 성미혜²

문경대학 간호과 전임강사¹,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²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preparing for educational programs on the role of a father that are designed to help primiparous spouses carry out the paternal role successfully.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OB/GYN clinics and a study sample of 277 primiparous spouses who satisfied the selection criteria was selected. **Results:** Of the correlation among the childhood experiences, paternal attachment and role of a father of the subjects, the childhood experience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aternal-infant attachment and the role of a father. The paternal-infant attachment and the role of a father also had a positive correlation. **Conclusion:** An infant is influenced primarily by his or her parents, who will have immense influences on the child's growth and development. Since the paternal-infant attach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role of a father, the development of positive paternal-infant attachment must be preceded in order for a primiparous spouse to carry out the role of a father successfully.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is needed to foster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a father, accommodate the practical needs of primiparous spouses and nurture the paternal-infant attachment for the promotion of realistic,

successful role of a father.

Key Words : Life Experiences, Object Attachment, Rol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 역할에서 다른 역할로의 역할변이를 의미하는 역할전환(role transition)으로, 이중 부성전환은 부인의 임신과 출산에 의해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하는 것이다(Lim, 2002). 과거에는 양육자를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하였지만, 최근에는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아버지 자신들도 가족과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아버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준비나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와 지지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부성역할의 습득과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양육의 책임은 대부분 어머니에게 전가되고 이는 어

주요어 :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부성역할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ung, Mi-Hae,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633-165 Gaegeum-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25, Fax: 82-51-896-9840, E-mail: nursmh@inje.ac.kr

투고일 : 2009년 5월 27일 1차심사완료일 : 2009년 7월 3일 게재확정일 : 2009년 9월 4일

머니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건강한 모성을 획득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Hwang, 2003; Lim, 2002). 특히, 초산모 배우자의 경우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지지의 기회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줄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초산모의 배우자는 부성역할과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들을 산전교육을 통해 습득할 필요가 있다(Hwang, 2003).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에 적응하는 데에는 부성애착이 도움이 되는데, 부성애착은 아기의 출생 전부터 태아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서, 임신과 출산과정을 통해 변화된 가족의 역할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기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Hwang, 2003에 재인용).

부모들은 아동이 태어나면서 전 생애를 걸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부모가 보이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Sung & Joo, 2007). 따라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은 아동기 때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양육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자아 및 부모에 대한 내적모델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애착의 세대 간 전이가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Sung & Joo, 2007).

애착은 부모의 관계특성과 아기의 요구 민감성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부모의 능력에 있는 것으로, 부성애착은 어렸을 때 주관적으로 경험한 부모와 자신에 기대되는 역할이 내면화되면서 형성된다(Bowlby, 1979). 아버지 자신의 아동기 경험은 부성애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부성애착이 강할수록 출산 후 부모-영아의 상호작용이 빨리 시작되며, 부성역할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Hwang, 2003; Kang, 1996). 따라서 긍정적인 아동기 경험은 부성역할을 수행하는 행동방식과 관련해서 원천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성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elsky & Vondra, 1993).

Jung(2003)은 부모가 자신에게 보여준 행동이 가족형성 후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동기 때의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부모-자녀 관계와 부성역할에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모와 친밀하지 못한 관계를 가졌던 경험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요소가 되며 아버지의 자녀양육을 어렵게 한다(Kim, 2002). 즉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아동기 경험의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사람은 흔히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획득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므로(Sung & Joo, 2007), 초산모 배우자는 가족의 특성, 문화와 사회의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한 부성역할에 대한 교육과 준비로 올바른 부성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개인은 아동기 때 형성된 내적실

행모델을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나타내는 양육행동과 애착관계에도 그 영향을 미치며(Cho, 1996), 부성애착이 부성역할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볼 때, 이 세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동기 경험과 부성애착, 부성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Park과 Jeon(1999)은 아동기의 부모-자녀관계 경험은 성인기의 부부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Hwang(2003)은 가족분만 참여유무에 따른 부성애착과 부성역할자신감에 대한 연구에서 부성애착정도는 결혼만족 정도와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또한 부성애착은 임신의 계획 유무, 산전교육 참여 여부, 아기와의 조기접촉, 신생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부성역할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모 되기 준비에 대한 인식, 배우자 취업, 산전 교육 참여 등이 있다고 하였다. Bowen과 Miller(Hwang, 2003에 재인용)는 부성애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임신계획성 유무, 원하던 자녀수, 결혼만족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유 및 아기 돌보기 활동정도가 많을수록 부성애착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Park, 1999; Steel & Steel, 1998).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결과에서도 아동기에 발달된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은 이후의 부모로서의 자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고 있다(Jung & Kim, 2001).

연구변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신생아 애착(Park, 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의 애착에 대한 연구(Cho, 1996; Jung, 2000; Simon, Beaman, Conger, & Chao, 1993)와 아동기 경험과 인성 및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Jeon, 1997)가 일부 이루어졌으며, 부성역할과 부성애착에 관한 연구는 Kim(1995), Park(1999) 및 Hwang(2003)의 연구 등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아동기 경험과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산모 배우자의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부성역할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초산모 배우자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부성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초산모 배우자의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부성역할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성공적인 부성역할을 돕는 부성역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초산모 배우자의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및 부성역할 정도를 파악한다.
- 초산모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및 부성역할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초산모 배우자의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및 부성역할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아동기 경험

아버지와 상호작용을 한 과거의 경험과 성장과정의 경험(Kang, 1996)으로, 본 연구에서는 Epstein(1983)이 제작한 부모-또래척도(mother-father-peer scale)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부성애착

아버지와 신생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애정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행동 및 지각(Greenberg & Morris, 1974)으로, 본 연구에서는 Greenberg와 Morris(1974)가 첫 3일 동안 발달하는 유대의 성격인 열중도(engrossment)를 7가지 특성을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Kim(1995)이 개발한 부성애착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부성역할

문화적으로 어떤 특별한 규범과 구조적인 기능적 접근으로부터 연구될 수 있는 규정적인 행동(Kang, 1996)으로, 본 연구에서는 Yang(1993)의 초산모 배우자의 아기 돌보기에 대한 질문지 Kang(1996)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산모 배우자의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과 부성역할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04년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경기도와 인천에 소재한 두 곳의 산부인과병원의 병동에서 실시하였

다. 연구대상자는 아래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 본 연구자와 병동 간호사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설문지를 배부, 회수 하였다. 총 315명의 초산모 배우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이중 자료가 불완전한 38명을 제외하고 277명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임신 38주에서 42주 사이의 정상 분만한 초산모의 배우자
- 신생아의 출생 시 체중이 2.7 kg 이상인 초산모의 배우자
- 신생아 출생 후 48시간 이내 신생아를 1회 이상 만난 초산모의 배우자
- 본 연구에 동의한 초산모의 배우자

신생아의 체중은 자료수집 병원에서 재태기간 외에 신생아 체중을 2.7 kg을 기준으로 하여 정상적인 신생아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신생아 체중을 2.7 kg 이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23문항(초산모 배우자 관련 13 문항, 초산모 관련 4문항, 아기 관련 6문항), 아동기 경험 도구 23문항, 부성애착 도구 35문항, 부성역할 도구 10문항 등 총 91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아동기 경험

초산모 배우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상호작용을 한 과거의 경험과 성장과정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Epstein(1983)이 개발한 부모-또래척도(mother-father-peer scale)를 Park과 Jeun(1999)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70문항으로, 부모의 아동기 경험을 측정하는 60문항과 또래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산모 배우자가 자신의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을 한 경험을 측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아동기 경험 중 부친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는 30문항만을 선택하였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자신의 아동기 경험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 이상화 차원에 대한 문항(7문항)을 제외한 23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아동기 때 부모에 대한 경험을 독립심 고무와 과잉보호(13문항), 수용과 거부(10문항)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를 1점, '매우 그랬다'를 5점으로, 부정문항에 대해서는 역 코딩하여 점수를 구하였다. 아동기 경험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거부되지 않고 독립심이 더 많이 조장되었으며,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거부되지 않고 더 많이 수용된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해석한

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2) 부성애착

Greenberg와 Morris(1974)가 제시한 7가지 열중도(engrossment)를 바탕으로 Kim(1995)이 개발한 부성애착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35문항으로 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로서 속성별 7가지 범주 즉 시각적 인식, 촉각적 인식, 아기의 특성에 대한 인식, 완전한 개체로의 인식, 신생아에 대한 관심, 심리적 고양감 형성, 아버지의 자존감 증가로 나뉘며 각 범주에 5문항씩 포함되었다. 7개 문항은 부정적 문항, 28개 문항은 긍정적 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부정문항에 대해서는 역으로 코딩하여 점수를 구하였다. 부성애착은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3) 부성역할

Yang(1993)이 부모 역할관을 전통적인 관점(15문항)과 평등적 관점(5문항)에서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20문항의 도구를 Kang(1996)이 전통적인 부모역할과 관련한 내용 즉 '우유 먹이기', '목욕시키기', '재우기', '아기 옷 마련하기' 등의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내용으로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 6점 Likert 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해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를 1점, '거의 다 아버지가 한다'를 6점으로 점수를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성역할에 대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9$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부성역할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부성역할의 정도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하였다.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부성역할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초산모 배우자, 초산모 및 아기의 특성

초산모 배우자의 연령은 30~34세가 59.2%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졸이 56.7%, 종교는 없는 경우가 47.7%, 직업형태는 사무직이 32.9%로 가장 많았다. 월수입은 200~299만원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85.9%로 가장 많았다. 결혼만족 여부는 '매우 만족한다'가 75.1%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기간은 13~36개월이 46.9%로 가장 많았다. 산전방문 유무는 아내의 산전방문에 동반한 경우가 77.6%로 가장 많았으며, 산전교육 유무는 교육받지 않은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 원하는 자녀수는 2명이 63.5%로 가장 많았다. 아기의 성별에 대한 기대는 '구분 없음'이 53.8%, 임신희망 여부는 '원하는 경우'가 88.1%로 가장 많았다(Table 1).

초산모의 연령은 30~34세가 46.2%로 가장 많았고, 직업형태는 무직이 43.0%였으며, 기대하는 아기의 성별은 '구분 없음'이 40.8%, 임신희망 여부는 '원하는 경우'가 85.9%로 가장 많았다(Table 2).

신생아의 출생 시 체중은 3.0~3.4kg가 53.1%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아가 53.1%였고, 출생 시 아버지와 신생아의 첫 대면은 출생 후 30분 이내인 출생 직후가 98.9%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 후 회복실에 머무르는 기간인 출생 후 2시간 이내인 경우는 1.1%였다. 출생 시 첫 접촉은 출생 후 30분 이내인 출생 직후가 87.7%로 가장 많았다. 모자동실의 경우는 '하고 있다'가 51.3%로 '하고 있지 않다'의 48.7%보다 높았다(Table 3).

2. 대상자의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부성역할 정도

대상자의 부성애착은 최저 88점에서 최고 140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가지고 최대점수 4점에 대해 평균평점이 3.44 ± 0.30 점이었다. 부성역할은 최저 20점에서 최고 53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가지고 최대점수 6점에 대해 평균평점이 3.66 ± 0.47 점을 보였다. 대상자의 아동기 경험은 최저 51점에서 최고 111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지며, 최대점수 5점에 대해 평균평점이 3.65 ± 0.44 점이었다(Table 4).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및 부성역할 정도

초산모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중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및

Table 1. Characteristics of primiparous spouses (N=27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 \pm SD
Age (yrs)		32.6 \pm 3.2
	≤ 29	45 (16.2)
	30 ~ 34	164 (59.2)
	≥ 35	68 (24.5)
Educational level	\leq High school	62 (22.4)
	University	157 (56.7)
	\geq University	58 (20.9)
Religion	Protestant	77 (27.8)
	Catholic	30 (10.8)
	Buddhism	32 (11.6)
	Other	6 (2.2)
	None	132 (47.7)
Career type	Clerical	91 (32.9)
	Manufacturer	15 (5.4)
	Technical	45 (16.2)
	Professional	81 (29.2)
	None	2 (0.7)
	Other	43 (15.5)
Monthly income (10,000 won)		291.8 \pm 378.2
	100 ~ 199	56 (20.2)
	200 ~ 299	116 (41.9)
	300 ~ 399	59 (21.3)
	400 more	32 (11.6)
	No answer	14 (5.1)
Family structure	Nuclear	238 (85.9)
	Extended	39 (14.1)
Marital satisfaction	Very satisfactory	208 (75.1)
	Satisfactory	65 (23.5)
	Average	4 (1.4)
Length of marriage (month)		31.8 \pm 28.2
	≤ 12	69 (24.9)
	13 ~ 36	130 (46.9)
	37 ~ 60	44 (15.9)
	> 60	34 (12.3)
Prenatal visit accompanied	Yes	215 (77.6)
	No	62 (22.4)
Prenatal class participation	Yes	49 (17.7)
	No	228 (82.3)
No. of desired children		2.1 \pm 0.7
	1	36 (13.0)
	2	176 (63.5)
	≥ 3	65 (23.5)
Expected gender of the baby	Female	60 (21.7)
	Male	68 (24.5)
	None	149 (53.8)
Planned pregnancy	Planned	244 (88.1)
	Unplanned	33 (11.9)

부성역할 정도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결혼만족여부, 임신희망여부, 직업형태, 가족구조, 원하는 자녀수, 결혼기간, 산전교육유무로 나타났다. 초산모 배우자의 결혼만족여부($F = 4.440$,

Table 2. Characteristics of primipara (N=27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yrs)	≤ 29	125 (45.1)
	30 ~ 34	128 (46.2)
	≥ 35	24 (8.7)
Career type	Clerical	69 (24.9)
	Technical	4 (1.4)
	Professional	48 (17.3)
	None	119 (43.0)
	Other	37 (13.4)
Expected gender of the baby	Female	73 (26.4)
	Male	91 (32.9)
	None	113 (40.8)
Planned pregnancy	Planned	238 (85.9)
	Unplanned	39 (14.1)

Table 3. Characteristics of neonates (N=27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Birth weight (kg)	2.7-2.9	47 (17.0)
	3.0-3.4	147 (53.1)
	3.5-3.9	68 (24.5)
	≥ 4.0	15 (5.4)
Gender	Female	130 (46.9)
	Male	147 (53.1)
Time of the first eye contact with father after birth	Stat	274 (98.9)
	After	3 (1.1)
Time of the first physical contact with father at after birth	Stat	243 (87.7)
	After	34 (12.3)
Rooming-in	Yes	142 (51.3)
	No	135 (48.7)

$p = .013$), 임신희망여부($t = 2.480$, $p = .014$)와 아동기 경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만족도는 사후 검정한 결과 매우 만족하는 집단이 보통의 집단보다 아동기 경험의 정도가 더 높았다(Table 5). 결혼만족여부($F = 10.206$, $p < .0001$), 직업형태($F = 3.107$, $p = .010$), 가족구조($t = 2.157$, $p = .032$), 원하는 자녀수($F = 3.970$, $p = .020$)와 부성애착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한 결과 결혼만족도는 만족하는 집단과 매우 만족하는 집단이 보통의 집단보다 부성애착 정도가 더 높았으며, 원하는 자녀수는 3명 이상을 원하는 집단에서 1명을 원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부성애착 정도를 나타냈다(Table 6). 결혼만족여부($F = 8.474$, $p = .0001$), 결혼기간($F = 6.171$, $p = .0001$), 산전교육유무($t = 2.138$, $p = .033$), 원하는 자녀수($F = 6.674$, $p = .001$)와 부성역할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를 Scheffe's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 결혼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집단이 보통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

Table 4. Degree of childhood experiences, paternal attachment, role of a father

(N=277)

Variables	M ± SD	Item M ± SD	Min	Max	Range
Childhood experiences	84.07 ± 10.31	3.65 ± 0.44	1	5	51 ~ 111
Paternal attachment	120.65 ± 10.59	3.44 ± 0.30	1	4	88 ~ 140
Paternal role	36.69 ± 4.74	3.66 ± 0.47	1	6	20 ~ 53

Table 5. Differences in the level of childhood experie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imiparous spouses (N=277)

Characteristics	Categories	Childhood experiences		
		M ± SD	t or F	p
Age (yrs)	≤ 30	3.75 ± 0.45	1.40	.24
	30 ~ 34	3.64 ± 0.44		
	≥ 35	3.62 ± 0.45		
Educational level	≥ High school	3.61 ± 0.50	0.28	.75
	University	3.66 ± 0.44		
	> University	3.66 ± 0.38		
Religion	Protestant	3.55 ± 0.47	1.92	.10
	Catholic	3.71 ± 0.40		
	Buddhism	3.78 ± 0.42		
	Other	3.61 ± 0.25		
	None	3.67 ± 0.44		
Career type	Clerical	3.70 ± 0.46	1.61	.15
	Productive	3.47 ± 0.38		
	Technical	3.56 ± 0.46		
	Professional	3.71 ± 0.45		
	None	3.50 ± 0.58		
	Other	3.60 ± 0.37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 199	3.71 ± 0.47	0.56	.68
	200 ~ 299	3.66 ± 0.41		
	300 ~ 399	3.60 ± 0.44		
	≥ 400	3.60 ± 0.53		
	No answer	3.69 ± 0.38		
Family structure	Nuclear	3.66 ± 0.45	1.02	.30
	Extended	3.58 ± 0.42		
Marital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a	3.69 ± 0.44	4.44 *	.01
	Satisfaction ^b	3.57 ± 0.42		
	Common ^c	3.13 ± 0.52		
Length of marriage (month)	≤ 12 ^a	3.70 ± 0.45	0.52	.66
	13 ~ 36 ^b	3.64 ± 0.42		
	37 ~ 60 ^c	3.63 ± 0.52		
	> 60 ^d	3.60 ± 0.43		
Prenatal visit accompanied	Yes	3.66 ± 0.44	0.85	.39
	No	3.61 ± 0.45		
Prenatal class participation	Yes	3.75 ± 0.48	1.67	.09
	No	3.63 ± 0.43		
No. of desired children	1 ^a	3.65 ± 0.40	0.32	.72
	2 ^b	3.64 ± 0.45		
	≥ 3 ^c	3.69 ± 0.46		
Expected gender of the baby	Female	3.63 ± 0.47	1.28	.27
	Male	3.59 ± 0.44		
	Not-demar.	3.69 ± 0.43		
Planned pregnancy	Wanted	3.68 ± 0.44	2.48	.01
	Unwanted	3.47 ± 0.42		

*Scheffe's test was significantly at $p < .05$.**Table 6.**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aternal attach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imiparous spouses (N=277)

Characteristics	Categories	Paternal attachment		
		M ± SD	t or F	p
Age (yrs)	≤ 30	3.51 ± 0.23	1.58	.20
	30 ~ 34	3.44 ± 0.30		
	≥ 35	3.41 ± 0.33		
Educational level	≥ High school	3.40 ± 0.29	0.93	.39
	University	3.45 ± 0.30		
	> University	3.47 ± 0.30		
Religion	Protestant	3.43 ± 0.25	0.24	.91
	Catholic	3.47 ± 0.28		
	Buddhism	3.43 ± 0.32		
	Other	3.52 ± 0.34		
	None	3.45 ± 0.32		
Career type	Clerical	3.51 ± 0.28	3.10	.01
	Productive	3.23 ± 0.36		
	Technical	3.46 ± 0.29		
	Professional	3.43 ± 0.29		
	None	3.65 ± 0.28		
	Other	3.37 ± 0.3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 199	3.45 ± 0.30	0.27	.89
	200 ~ 299	3.44 ± 0.30		
	300 ~ 399	3.43 ± 0.29		
	≥ 400	3.48 ± 0.31		
	No answer	3.39 ± 0.26		
Family structure	Nuclear	3.46 ± 0.29	2.15	.03
	Extended	3.35 ± 0.30		
Marital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a	3.48 ± 0.29	10.20 *	.00
	Satisfaction ^b	3.36 ± 0.29		
	Common ^c	2.94 ± 0.18		
Length of marriage (month)	≤ 12 ^a	3.49 ± 0.31	1.43	.23
	13 ~ 36 ^b	3.41 ± 0.30		
	37 ~ 60 ^c	3.48 ± 0.30		
	> 60 ^d	3.42 ± 0.25		
Prenatal visit accompanied	Yes	3.45 ± 0.29	0.79	.42
	No	3.42 ± 0.32		
Prenatal class participation	Yes	3.48 ± 0.32	1.07	.28
	No	3.43 ± 0.29		
No. of desired children	1 ^a	3.34 ± 0.33	3.97 *	.02
	2 ^b	3.44 ± 0.30		
	≥ 3 ^c	3.52 ± 0.25		
Expected gender of the baby	Female	3.46 ± 0.28	0.67	.51
	Male	3.41 ± 0.31		
	Not-demar.	3.45 ± 0.30		
Planned pregnancy	Wanted	3.45 ± 0.29	1.89	.06
	Unwanted	3.35 ± 0.31		

*Scheffe's test was significantly at $p < .05$.

으며, 결혼기간은 12개월 이하의 집단과 36개월 이하인 집단이 61개월 이상의 집단보다 부성역할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원하는 자녀수의 경우는 1명을 원하는 집단이 2명과 3명 이상 원하는 집단보다 부성역할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7).

Table 7.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aternal rol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imiparous spouses (N=277)

Characteristics	Categories	Paternal attachment		
		M ± SD	t or F	p
Age (yrs)	≤ 30	3.73 ± 0.59	2.68	.07
	30 ~ 34	3.69 ± 0.43		
	≥ 35	3.55 ± 0.47		
Educational level	≥ High school	3.55 ± 0.55	2.97	.05
	University	3.68 ± 0.47		
	> University	3.75 ± 0.33		
Religion	Protestant	3.74 ± 0.48	2.39	.05
	Catholic	3.70 ± 0.39		
	Buddhism	3.58 ± 0.44		
	Other	3.18 ± 0.34		
	None	3.65 ± 0.48		
Career type	Clerical	3.72 ± 0.35	0.46	.80
	Productive	3.58 ± 0.67		
	Technical	3.66 ± 0.56		
	Professional	3.63 ± 0.52		
	None	3.80 ± 0.28		
	Other	3.66 ± 0.43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 199	3.68 ± 0.55	0.77	.54
	200 ~ 299	3.69 ± 0.44		
	300 ~ 399	3.58 ± 0.48		
	≥ 400	3.74 ± 0.42		
	No answer	3.62 ± 0.44		
Family structure	Nuclear	3.68 ± 0.46	1.31	.19
	Extended	3.57 ± 0.51		
Marital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a	3.71 ± 0.46	8.47 *	.00
	Satisfaction ^b	3.58 ± 0.45		
	Common ^c	2.82 ± 0.57		
Length of marriage (month)	≤ 12 ^a	3.75 ± 0.42	6.17 *	.00
	13 ~ 36 ^b	3.71 ± 0.45		
	37 ~ 60 ^c	3.63 ± 0.44		
	> 60 ^d	3.36 ± 0.57		
Prenatal visit accompanied	Yes	3.66 ± 0.46	0.03	.97
	No	3.66 ± 0.52		
Prenatal class participation	Yes	3.80 ± 0.44	2.13	.03
	No	3.64 ± 0.47		
No. of desired children	1 ^a	3.93 ± 0.46	6.67 *	.00
	2 ^b	3.62 ± 0.44		
	≥ 3 ^c	3.63 ± 0.50		
Expected gender of the baby	Female	3.68 ± 0.54	1.29	.27
	Male	3.58 ± 0.48		
	Not-demar.	3.69 ± 0.44		
Planned pregnancy	Wanted	3.68 ± 0.46	1.20	.22
	Unwanted	3.57 ± 0.50		

*Scheffe's test was significantly at $p < .05$.

4. 대상자의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부성역할간의 관계

대상자의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부성역할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Table 8)과 같다. 아동기 경험은 부성애착($r = .35, p < .001$), 부성역할($r = .19, p = .001$)과 약한 순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성애착과 부성역할($r = .24, p < .001$)도 약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긍정적인 아동기 경험일수록 부성애착과 부성역할 정도가 높았으며, 부성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부성역할 정도도 높았다.

Table 8. Correlation among childhood experiences, paternal attachment and paternal role (N=277)

Variables	Childhood experiences	Paternal attachment
Paternal attachment	$r = .35^*$	
Role of a father	$r = .19^*$	$r = .24^*$

* $p < .001$.

논 의

오늘날 핵가족화의 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는 부성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첫아이를 갖게 되는 초산모 배우자가 부성역할에 대한 준비 혹은 교육의 기회가 없는 경우는 새로운 상황과 부성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기 경험은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3.6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과 Jeun(1999)의 연구에서 평균평점 3.39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은 것이다. 부성애착은 총 175점 만점에 평균 120.6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1995)의 연구에서 평균 115.15점으로 나온 결과와 Park(1999)의 연구에서 평균 113.7점으로 나온 결과보다 높은 것이지만, 고위험군과 정상군으로 나누어 부성애착을 분석한 Kim(2002)의 연구에서 평균 131.35점으로 나온 결과보다는 낮은 결과이다. 부성역할은 총 60점 만점에 평균 36.69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ang(1996)의 부성전환 스트레스에 관한 이론적 구조모형 연구에서 첫 아이에 대한 점수가 평균 24.16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산모 배우자의 아동기 경험은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생활 및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Heo(2004)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

상자의 성장환경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Park과 Jeun(1999)의 연구에서 아동기 경험이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이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만족을 준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결혼만족도는 다양한 부부상호과정에서 의해 형성되는 결과개념으로, 핵가족이 증가된 현 시대에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하며, 결혼만족도를 계속되는 결혼과정의 특징을 반영한 현상으로 보고 시간에 따라 변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Chung, 2001; Kim, 2003).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자녀가 분리되는 시점이 대부분 결혼 시기이므로 일생을 통한 초기 단계에서의 긍정적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부모와의 관계 측면에서 다양한 경로를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초산모 배우자의 아동기 경험은 임신희망여부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긍정적인 아동기 경험을 가진 경우 임신을 원하고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부가 임신을 희망하는 경우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역할전환의 과정을 함께 하게 되므로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적게 되며, 더 나아가 출산, 육아 계획을 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전환과정이 순조롭게 되어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잘 이행하게 된다(Lee, 1996). 이와 같이 초산모 배우자의 긍정적인 아동기 경험이 대상자의 부부관계의 질은 물론 임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초산모 배우자의 긍정적인 역할전환을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를 마련할 때 이들의 아동기 경험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아동기 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신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성찰과 교육을 통한 정보 취득은 물론 의료기관 및 주변 자원을 지지체계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초산모 배우자의 부성애착 정도는 직업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Woo, Lee와 Jeon(2003)이 양육태도를 부모의 신념을 포함한 전체적인 태도로 보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연구한 결과에서 전문직, 사무직이 판매, 서비스의 직업보다 아이에 대해 관심의 부족, 애정의 결핍을 보였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적으로 비정규적인 직업이 정규적인 직업보다 시간의 분배와 조정이 가능하여 자녀와의 접촉 기회가 용이하며, 적극적인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직업이 없는 경우에서 부성애착 정도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직업형태의 전체적 측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업의 형태와 관련하여 부성애착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초산모 배우자의 부성애착 정도가 가족의 구조에 따라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Hwang(2003)의 연구에서 가족구조가 부성애착과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성애착이 가족구조와 명백하게 관련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아직까지 전통적 혈연중심의 가치관이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핵가족화가 과거의 남아선호사상과 다산의 풍습이 아닌 단산을 초래하여 부성애착의 기회를 증가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지지체계의 변화를 겪는 아버지들로 하여금 부성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과 교육의 기회 또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초산모 배우자의 부성애착 정도는 결혼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Hwang(2003)의 연구에서 아버지가 결혼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에 부성애착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Hwang(2003)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영아는 아버지와 안전한 애착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 내 원만한 부부관계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초산모 배우자의 부성애착 정도는 원하는 자녀수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Park(1999)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은 원하던 아이의 수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첫째아기인 경우 애착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평소 아이를 좋아하는 개인의 성향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초산모 배우자의 부성역할 정도는 결혼만족도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Hwang(2003)의 연구에서 아버지가 결혼생활에 매우 만족할 경우 부성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Kang(2000)의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결혼만족도가 긍정적인 부성역할을 나타내는 애정적 양육행동의 30%를 설명한다는 결과와 Kim(1997)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다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Belsky(Park & Jeun, 1999에 재인용)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결혼만족도에 의해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데, 실제로 자신의 유아가 까다로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아버지는 부모역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Nugent(1991) 또한 아버지 역할 중요성과 함께 역할수행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에서 아버지 역할수행은 아버지의 배경변인, 가정변인, 아동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원만한 부부관계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게 되어, 출생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부모의 환경은 자녀의 성장 환경과 발달영역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부관계 증진과 개선을 위한 주변의 자원 활용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초산모 배우자의 부성역할 정도는 결혼기간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Lee(Park & Jeun, 1999에 재인용)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아버지의 역할도 첫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와 아버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연구(Park & Jeun, 1999에 재인용)에서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애착형성이 잘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러나, 산모를 대상으로 한 Park과 Kim(2000)의 연구에서 결혼기간이 1년에서 5년인 경우 모성역할 지식이 높다는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선행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본 연구와 Lee(Park & Jeun, 1999에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부성역할은 결혼 후 임신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준비하고 학습할 시간과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짧은 결혼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되는 현실에서 초산모 배우자의 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한 부성역할 준비와 이에 대한 교육효과가 긍정적인 부성역할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결혼 후 경과된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초산모 배우자의 결혼생활에의 적응과 부성역할 수행을 돕기 위해서 청소년기부터의 부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초산모 배우자의 부성역할 정도는 산전교육유무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Hwang(2003)의 연구에서 산전교육을 받은 군이 산전교육을 받지 않은 군에 비해 부성애착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산전교육 참여가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산모를 대상으로 한 Chun(2001)의 모성적응에 관한 출산준비효과 연구에서 교육 참석군의 모성적응 평균점수가 교육받지 않은 군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산전교육이 부성역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므로, 산전간호 시 부성역할 수행에 필요한 아버지 역할에 따른 책임과 영아돌보기와 같은 정보와 지식들을 산전교육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산전교육의 목표는 출산과 초기양육의 과제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Nichols & Humenick, 2000)임을 볼 때, 이러한 교육은 첫 아이를 갖게 되는 남편에게 신생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분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생 후 첫 접촉의 중요성 인식과 부성역할 수행을 도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의 교육에 참여한 횟수

가 평균 2.1(SD 1.5)회라는 점은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에서 남편들이 규칙적인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기관 혹은 직장 내에서의 단기간 아버지 교육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며, 일회성의 교육일 경우 의료기관, 교육전문가와 다양한 매체수단을 통한 지속적인 연계로 정보제공과 교육기회를 제공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산모 배우자의 부성역할 정도는 원하는 자녀수가 1명인 경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Lee(Park & Jeun, 1999에 재인용)의 연구에서 자녀가 1명인 경우에서 부성역할수행이 높게 나타나고 2~3명인 경우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부성역할수행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거와 달리 단산을 하는 시대적인 흐름과 맥을 놓고 볼 때, 초산모 배우자의 역할수행을 돕기 위해서는 원하는 자녀수와 관련해 임신의 의도부터 양육과정을 포함하는 부성역할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역할 관련교육을 통해 원하는 자녀수에 대한 원인을 파악, 분석하여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현 시대에 적합한 대안을 세우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초산모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중 결혼만족여부, 임신희망여부, 직업형태, 가족구조, 원하는 자녀수, 결혼기간, 산전교육 유무가 이들의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및 부성역할 정도에 차이를 보인 변수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초산모 배우자의 결혼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들의 부성애착 및 부성역할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기능에 대한 아버지의 만족이 이들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아동기 경험이 부성애착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아동기 때 자신의 어머니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에 애착이 높다는 연구결과(Kim, 2002)와 자신에게 애정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애착이 높다는 연구결과(Kim, 1995), Kim(2002)의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녀에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아버지와의 애착이 많을수록 부성애착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릴 적 경험한 것이 성장 후 인성과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Jung & Kim, 2001)는 점은 세대 간의 애착전이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동기 경험과 부성역할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아버지가 어릴 적 받은 지지경험이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이 있다는 보고(Simon, Beaman, Conger, & Chao, 1993)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릴 적 경험한 대인관계 경험은 성장 후 이성발달과 자신과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며, 현재의 관계, 정서, 행동방식을 결정짓는 원천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Belsky & Vondra, 1993). 그러므로 가정은 아동기 경험의 정서적인 이해와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 가정에 맞는 중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부성애착과 부성역할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 참여하여 부성애착을 증가시킴으로써 부성역할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초산모 배우자 자신이 경험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아동기 경험은 내적실행모델을 통해 이들의 부성애착 및 부성역할 습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서 부모는 자녀와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아이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서적인 반응을 해석하고 표현행동을 결정하게 되므로, 초산모 배우자가 부성애착을 증진시키고 부성역할을 습득하는데 이들의 아동기 경험을 고려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도와 인천에 소재한 두 곳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정상 분만을 한 초산모 배우자 277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부성역할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이다.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부성역할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아동기 경험과 부성역할은 평균수준을 보였으며, 부성애착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초산모 배우자의 아동기 경험 정도는 결혼만족도, 임신희망여부에서, 부성애착 정도는 직업형태, 가족구조, 결혼만족도, 원하는 자녀수에서, 부성역할 정도는 결혼만족도, 결혼기간, 산전교육유무, 원하는 자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임신과 관련된 요인들이 초산모 배우자의 아동기 경험, 부성애착 및 부성역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결혼만족도는 공통적인 영향요인이므로, 청소년기부터 결혼 및 임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초산모 배우자의 아동기 경험은 부성애착, 부성역할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성애착과 부성역할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초산모 배우자가 부모역할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아동기 경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부성애착 및 부성역할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기관에서의 청소년 및 예비부부를 위한 올바른 부모역할교육과 임상현장에서의 초산모 배우자를 위한

산전교실 운영이나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References

-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s factors. In Luster, T., & Okagaki, L.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227-250). Hillsdale: Lawrence Erlbaum.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New York: Tavistock.
- Cho, H. S. (1996). *The parent's child experience and children's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Chun, N. M. (2001). *The effects of childbirth education on primipara's childbirth experience and postpartum maternal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hung, H. S. (2001). A study of development of the Korean-marital satisfaction scale. *J Korean Acad Fam Med*, 39 (11), 89-106.
- Epstein, S. (1983).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 Greenberg, M., & Morris, N. (1974). Engrossment: The newborn's impact upon the father. *Am J Orthopsychiatry*, 44(4), 520-531.
- Heo, M. W. (2004). *A study on the marital life and satisfaction of middle age man an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wang, E. J. (2003). *The comparison of paternal attachment and role confidence to newborn between participation group and non-participation group in family delivery roo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Jung, M. K. (2003). Maternal parenting experience, depress, marital conflict, & parenting behavior predicting school children's adjustment. *J Korean Home Econ Assoc*, 41(8), 123-137.
- Kang, N. M. (1996). *Theoretical structure model for stress in transition to father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ang, R. H. (2000). Determinants of father role performance. *J Korean Acad Fam Med*, 38(6), 15-28.
- Kim, N. Y. (2002).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s's experiences from childhood on their child's attitude of acceptance of emotional express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 Kim, Y. S. (2003). *Effect of program for the marital satisfaction, communication, mutual acceptance of couples in the early stage of marri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im, J. Y. (1995). The degree of paternal attachment to neonate. *J Korean Acad Nurs*, 25(2), 330-340.
- Kim, J. H. (2002). *The comparison of paternal attachment to high-risk newborn and normal newbor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 J. (1997). *The variable related to father's child rearing practices and involvement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E. H. (1996). A study on the pregnancy experience of the primiparous couple: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Bulletin Nurs*, 10(2), 252-253.
- Lim, J. A., & Yoo, E. K. (2002). A study on the effects of father class upon fathers level of knowledge and confidence about postpartal woman and newborn care. *Korean J Women Health Nurs*, 8(3), 345-357.
- Nichols, F. H., & Humenick, S. (2000). *Childbirth education: Practice, research, and theory*. Philadelphia : WB Saunders.
- Nugent, J. K. (1991). Culture and psychosocial influences on the father's role in infant development. *J Marriage Fam*, 53, 475-485.
- Park, E. S., Kim, E. K., Won, J. W., Oh, W. O., Suk, M. H., & Im, Y. J. (2002).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described in Korean classic novels. *J Korean Acad Nurs*, 8(4), 469-481.
- Park, K. J. (1999). *The comparison of paternal attachment to newborn between rooming-in and nursery syst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Park, M. S., & Kim, H. W. (2000). A study on primigravida's antenatal self-care behavior and maternal knowledge. *Korean J Women Health Nurs*, 8(1), 119-128.
- Park, S. Y., & Jeun, H. J. (1999). Childhood experience,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Relationship to parenting behaviors. *Korean J Child Stud*, 20(3), 153-169.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s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 Marriage Fam*, 55, 91-106.
- Steel, H., & Steel, M. (1998). Attachment and psychoanalysis: Time for reunion. *Soc Dev*, 7(1), 92-119.
- Sung, M. H., & Joo, K. S.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hood experience and childrearing attitude of primipara. *J Korean Soc Mat Child Heal*, 11(1), 1-9.
- Woo, J. H., Lee, M. S., & Jeon, C. A.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child 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 Korean Home Econ Assoc*, 41(12), 91-101.